2019.9.19.~ 9.23.
중국 연변

국외출장보고서

2019. 9.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Ⅰ. 국외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북한 해운산업 실태조사 및 북한·연변 해운물류, 해양크루즈 협력사업 모색

○ 두만강 포럼 참석 및 발표

– 환동해 크루즈 발전 전략 발표(황진회 본부장)

2. 출장자

○ 해운해사연구본부 황진회 본부장, 전서연 전문연구원

3. 출장일정 및 출장지

○ 출장일정 : 2019. 9.19 ~ 9.23(황진회 본부장), 9.19 ~ 9.21(전서연 전문연구원)

○ 출 장 지 : 중국 연변

4. 전체 일정

일자	방문지	시간	내용	비고
9.19(목)	부산→연길 연길	07:00~08:45 09:35~11:00 16:00~19:00	○ 전서연 이동(김해공항→중국 연길공항) ○ 황진회 이동(인천공항→연길공항) ○ 북한 해운물류 관련 자문회의 ＊ 연변대 교수, 연변천우국제무역회사 본부장	KE 891 BX 0337
9.20(금)	훈춘 연변대	07:00~09:00 09:30~12:30 16:00~17:30	○ 이동 (연길호텔→훈춘)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방문 ○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최철남 원장, 서철준 부원장 면담	
9.21(토)	연변대 연길→인천	10:00~13:00 12:20~15:50 18:00~	○ 연변·두만강 크루즈 관련 면담(연변대 최철호 교수) ○ 전서연 귀국 (연길공항→인천공항) ○ 두만강 포럼 환영행사	 KE0892
9.22(일)	연변대	09:00~ 13:00~17:30 18:00~	○ 두만강 포럼 개회식 ○ 두만강 포럼 참석 (세션 1,2) ○ 북한 해운물류 관련 전문가 면담 (연변대 동북아학원 부원장 안국산 교수)	
9.23(월)	연변대 연길→인천	09:00~11:45 18:30~22:05	○ 두만강 포럼 세션 3 주제 발표 및 토론 (“환동해 크루즈 발전 전략“) ○ 황진회 귀국 (연길공항→인천 공항) * 9.24: 서울–부산 이동	 7C8904

Ⅱ.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방문

1.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16시

□ 참석자 : 연변대 교수, 연변천우국제무역회사 본부장

□ 세부내용

○ 연변천우국제무역회사에서는 평양으로 연결된 항공 노선을 보유

- 마카오/대련~평양, 심양~평양(주4회), 베이징~평양(주5회)
- 마카오~평양 노선의 경우, 동남아인들이 사증검사를 줄이기 위해 이용
- 연길~평양 항로 있었으나 적자로 운항 중지

○ 항공 및 관광은 UN제재와 상관없음

- 물건은 수송하지 못함

○ 현재 북한은 관광에 집중하고 있음

- 평양 관광은 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 중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음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를 선포했으며 금강산 개발을 원산까지 확대, 금강산은 철도 등 인프라 보유
- 원산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호텔 공사 완료 및 추가 공사 중
- 관광 상품도 개발 중이며 화장품, 주사약(면역력 제고) 등이 품질이 좋아 관광객들도 선호

○ 개방에 대해 남한과 북한, 주변 국가 간 서로의 입장차이 존재하며 갑작스런 개방은 불가능함. 다만 북한은 개혁(확신)을 추진하고 있음

- 개방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 향상 등을 통해 사상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남북협력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관광협력을 기초로 해서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능성 높음. 특히, 속초~원산 유람선(1시간 소요) 등 고려 가능
- 북한은 인구밀도가 낮아 기초공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움. 기초공업은 남북경협이 필요한 분야임
- 서해안은 군사문제 등으로 인해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 보임

○ 연변대학교에서는 조선경제관리배양사업을 진행 중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교육을 중요시하며 교육자들 대우가 높음

2.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방문

□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9시 30분

□ 참석자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법인장, 본부장, 부장

□ 세부내용

○ 2017년 8월 UN제재 이후 북한에서 중국으로 물건 유입이 전면 중단됨. 이로 인해 수산업계에서 천만 달러 손실을 봤으며 아직도 자금난을 겪고 있음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에서도 중국 전역으로 유통되는 북한 수산물을 보관했었으나 현재는 없음. 따라서 지금은 러시아 연해주에 좀 더 집중하는 중임

– 러시아 연해주 수산물, 밀가루, 콩기름 등을 들여오고 있으며 점점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버섯, 농산물 등 톤수가 적은 것은 창고 일부를 임대해주고 밀가루 등 부피가 큰 것은 창고 전체를 임대해줌

○ 중·미 무역 분쟁은 중·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만약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 북한에 트럭이 들어가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함

○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는 자가 운영이 40%, 임대·위탁이 60%로 구성됨. 임대·위탁의 경우 중국 국내 기업들이 70% 정도 됨

– 수산물 가공공장도 1곳 들어와 있으며 수조업체도 들어와 있음. 수조업체는 러시아 대게를 보관

○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회사 운영에 영향이 없으며 UN, 미국, 중국의 정책이 영향을 미침

– 북한산 물품을 취급하는 것이지 북한과 직접 거래 하지 않음.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더 작용함

– 2017년 8월에 UN제재 당시 중국은 사전 예고 없이 바로 국경을 닫고 아직까지도 열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물동량이 많이 줄었음. 중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길 기다리고 있는 동시에 러시아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현황의 경우, 계획은 많이 있으나 투자가 잘 이뤄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훈춘~장춘 고속철도 건설 및 노선 추가
- 훈춘~블라디보스톡 간 180km 고속철도가 올해 초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4년 개통될 계획임. 만약 개통된다면 1시간 만에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갈 수 있음. 그러나 러시아 내 노선은 또 어떨지가 문제임
- 러시아 슬라비앙카 항구가 열렸지만 항구가 작아서 큰배가 접안할 수 없음.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투자를 받지 않음. 자루비노항도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통관이 어렵고 전문회사를 이용해야 함
- 관건은 나진과 선봉임. 나진·선봉 개방 시 중국 남방으로 나가는 통로가 확보되며 대련을 경유하는 항로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나진·선봉 개방 시 훈춘은 지리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훈춘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일대일로 추진 시 훈춘이 북방 지역의 종착지임

3.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방문

□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16시

□ 참석자 : 최철남 원장, 서철준 부원장

□ 세부내용

○ 연변대 경제관리학원은 전문대 학부(3개)와 10개의 학부가 있음. 본교와 훈춘캠퍼스에 각각 7개, 3개의 학부가 있음

- 훈춘에는 물류, 관광경영, 경영정보과가 있으며 전문대에는 호텔경영, 물류, 전자상거래과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들이 매해 10명 정도 연변대에서 연수 및 교육을 받고 있음

-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 때 문제점과 해결에 관심이 많음. 마케팅과 인사조직에 관한 체계적이 교과서가 없으나 수요는 많음

○ 연변경제는 관광산업을 주도 산업으로 발전 중임

- 최근에는 변경관광, 다국경관광, 향촌(농촌)관광 등을 개발하고 있음. 향촌관광은 중국이 농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신경쓰고 있는 부분임
- 연변 사람들은 주로 국내 관광을 많이 하지 않음. 해외의 경우 직항이 개

설돼 있는 한국, 오사카, 대만 등을 주로 방문함

○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훈춘캠퍼스는 최근에 설립함. 훈춘시 지방정부는 훈춘을 해양경제 시범구로 만들고자 하며 이에 연변대와 인력양성, 연구 등의 협력하고자 함

○ 연변대학교에서는 북한 방문이 용이해 북한의 경제 현황 파악이 수월하고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함. 따라서 연변대와의 교류를 통해 북한 연구를 심화할 수 있음

- 현재 연변대와 경기대(관광), 숭실대(금융)와 공동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연세대경영연구소와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주최하고 있음
- KMI와 연변대 간의 MOU추진 또는 정기적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하는 방안 검토
- 또한 훈춘캠퍼스의 지리·해양과학학원에서 해양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협력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크루즈 관광 분야도 훈춘캠퍼스에서 연구 중임

Ⅲ. 두만강 포럼 내용

1. 행사 개요

○ 중국 옌벤대학교 주최로 2019년 제12회 두만강포럼이 옌밴대학교에서 개최

– ‘일대일로 창의와 두만강유역 新발전’이라는 주제로 9.22(일)-23(월) 1박2일간 진행됐으며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동북아지역 국가,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

2. 발표내용

<발표 1>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서 조·중 경제협력이 노는 역할 (리명숙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지역적 경제발전과 번영은 현 시기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임

○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경제발전과 교류를 통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나라들이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맞게 지역적인 경제발전과 번영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이 지역 모든 나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지역은 기타 어느 지역들보다도 제도와 이념, 역사적 영토문제, 통일문제가 나라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외세에 의한 민족적 지배와 예속의 쓰라린 과거사로 인하여 나라간 오해와 불신이 잔존하고 있음

– 이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서로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경제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 번영의 진정한 길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한편,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공동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가겠다는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에 맞는 정치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것임

○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공동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경제협력의 본보기는 조·중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중 경제협력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공동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

- 조·중 경제협력은 장기간 혁명투쟁과정에 쌓은 깊은 우정을 중시하고 선대 수령들이 개척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데 방점을 두고 추진
- 조·중 경제협력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중국의 동북3성간 공동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
- 중국은 특수경제지대 개발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경제지대와 마주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경제개발을 국가적인 투자전략으로 책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양국이 절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

○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 사이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조·중 경제협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나라와 중국과 경제협력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나갈 것임

-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지대개발의 총체적인 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지대개발과 관리일군 양성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

<발표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두만가이역관광자원개발의 현실태와 중요 문제 (김경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두만강지역에서 관광자원개발을 다그치고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는 것은 지역과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

○ 두만강지역의 관광자원개발은 지역의 관광업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함

- 국제관광은 매우 넓은 영역에서 대단히 크고 다양한 사슬로 연결되어 무역, 운수, 체신, 려관, 관광기업, 은행 등을 포괄하는 복합경제분야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나라들과 지역들의 경제, 문화, 정치에 대단한 영향을 미침
- 두만강지역에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여 관광을 발전시키면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입을 늘이며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수출증대, 일자리 창조의 기회를 늘이는데 기여

○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관광협조와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두만강지역에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광업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파급
- 아시아태평양 관광산업이 확대 발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세계적인 관광업 발전이 중심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두만강지역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관광협력에서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에서는 두만강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음

-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개발초기부터 관광사업의 중요성과 지대의 유리성에 맞게 여러 대상의 관광지를 꾸리고 관광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는 수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수용
- 온성섬관광개발구를 창설하여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민족음식점을 비롯한 봉사시설 등 전문적인 휴식관광봉사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
- 백두산관광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창설하고 개발을 추진

○ 조·중 사이의 관광분야에서 협조가 날을 따라 강화되고 있으며 두만강에 접해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사이의 관광협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조·중 사이의 초국경 관광로정으로 훈춘-라선 관광로정, 화룡-삼지연-백두산 관광로정, 화룡-삼지연-평양-백두산 관광로정, 룡정-청진-칠보산 관광로정 등이 개척
- 두만강 특색을 살린 관광로정으로 훈춘 권하-라선 자가용 려행로렁, 중국 도문-북한 청진-칠보산 관광 전용렬차 려행, 연길-평양 전세기 관광로정 등 운영

○ 두만강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음

- 첫째, 관광매력이 크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관광자원을 찾아내어 현실적 관광자원으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 필요
- 둘째, 관광자원개발에서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적극 살리는 한편,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고 자원의 관광

매력 제고 필요

- 셋째, 관광자원개발에서 생태환경의 보호를 중시

○ 현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의 주시장인 중국시장만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두만강지역의 관광자원개발에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북중 모두에게 유익함

- 관광개발구들의 법률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기업창설의 행정적 수속 절차 간소화, 인원과 물자의 입출국이 편리한 환경 조성 필요

참고 1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방문



물류창고 외부



물류창고 내부(수조)

참고 2 두만강 포럼 행사 사진



